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행능력,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주현정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Hyeon-Jeong Ju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에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임상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근거중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 적용과 교육환경 등 다각적인 변화와 임상 수행능력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줄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model of nursing student 's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subjects consisted of 227 nursing students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s,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a direct effect on Professional self-concept for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an indirect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a direct effect 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pproach to nursing students 'self-concept in nurs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pproach to nursing students' self-concept. And to develop and apply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reduce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Stress

Received 5 April 2017, Revised 31 July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Hyeon-Jeong Ju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Email: joo97964@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돕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련의 간호 활동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는 학문[1]이다. 이론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올바른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통해 근거중심의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실습교육은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간호대상자에게 상황에 맞는 임상수행능력을 시술하고 관리하며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무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시기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행위 시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 정도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동원하여 사물, 장면, 상황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입장을 형성하므로 간호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눈이 될 수 있다[2].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는 의료현장에서 타 전문직 종사자와 조화를 이루며 간호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철한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에 시작하고 실무경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2,3].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과 전문인으로서 역할수행 및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학생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실습교육은 실무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여 전문인의 기술을 습득하고, 간호사의 가치관과 태도, 간호 이미지 형성 및 전문 간호사의 역할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4,5].

그러나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차이, 현장 적용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무력감, 역할 혼돈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과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학에 대한 흥미 소실, 실습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과 기대를 경험하게 해서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6].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부정적일 때 이론과 실습 교과목 중 특히 가장 긴장감을 갖게 하는 임상실습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며[7]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기술, 태도 판단으로 능숙하게 간호술을 시행 할 수 있는 능력인 임상수행능력[8]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의료현장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전문화, 다양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로 질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생때부터 체계적으로 익혀야하는 실무교육으로 간호업무의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임상실습의 부정적 경험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간호업무 생산성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은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으로 간호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추측하기보다 사실 혹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성향으로, 간호실무에서 질적인 간호수행과 전문적 책임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9]. 비판적 사고능력은 근거중심의 간호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10] 많은 간호교육자들은 임상상황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 설계와 전략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11],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간호교육 인정평가의 교육성과 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인적 존재의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양성 및 지식의 통합 등 융복합으로 접근하는 비판적 사고가 간호를 건강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상현장을 경험하고 적응하는 실습교육과정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리라 생각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2]에서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만족도와와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13]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4]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등이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 수행능력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는 있으나 전문직 자아개념은 관계 요인 중 하나의 개념 변수로 다루거나 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많으나, 임상실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관련성을 확인 한 후 예측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업무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의 역할수행에 대해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변인들 간의 가설적 모형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한다.
-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접, 간접, 총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행능력, 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문헌 고찰을 근거로 하여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한 후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G시 1개 대학과 C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을 두 학기 이상 경험한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요구되는 대상자 선정 수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 200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견해[15]에 근거, 탈락률 10% 등을 고려하여 총 250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자료 수집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23명을 제외한 227명을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Whang[16]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7문항으로 상황 특성 31문항, 개인특성 17문항, 외부조정요인 9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Whang[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고,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다. 하부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상황특성이 .94, 개인특성 .91, 외부조정요인이 .89이었다.

2.3.2 임상실습 수행능력

Lee et al[17]이 개발하고 Choi[18]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 하위영역의 총 45문항으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3.3 임상실습 만족도

Cho와 Kang[19]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

와 Lee[20]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Kim, Kim[21]이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6개 하위영역의 총 31문항으로,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Kim, Kim[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4 비판적 사고성향

Yun[22]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7개 하위영역으로 총 27문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이다. 이 중 1, 25문항은 역산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un[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5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Arthur[23]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Sohng과 Noh[24]가 번역한 것을 Seo[5]가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7문항(2, 7, 14, 18, 20, 25, 27)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이며, 7문항(9, 12, 13, 18, 21, 23, 25)은 역산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hng과 Noh[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였고, Seo[5]의 연구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8월 21일부터 2016년 8월 26일까지이며 수집 방법은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kaya IRB-71호)을 받고, 선정 학생의 동의를 받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선물을 감사의 뜻으로 전했다.

2.5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법을 이용하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부하량과 임계비를 검증하고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의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적합도 검증은 χ^2 검증, CMIN/DF, 기호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평균제곱잔차제곱근(root mean-square residual, RMR),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표준적합지수(Turker-lewis index, TLI), 비교적합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이용하였다.
-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이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207명(89.4%)으로 대부분 여학생이었으며, 연령은 22세가 93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21세가 85명(37.4%), 23세 이상이 49명(21.6%) 순이었다. 종교는 있음이 112명(49.3%), 없음이 115명(50.7%)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자가 117명(51.5%) 기숙사가 69명(30.4%)순이며, 진학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76명(33.5%), 취업이 잘 되므로가 71명(31.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 78명(34.4%), 보통 76명(33.5%), 불만 73명(32.2%)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건강 89명(39.2%), 불건강 78명(34.4%), 보통 60명(26.4%)순이었고,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나쁨이 100명(44.1%), 좋음 87명(38.3%), 보통 40명(17.6%)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중 가장 어려웠던 관계는 간호사가 116명(51.1%), 환자 및 보호자가 39명

(17.2%), 수간호사 26명(11.0%)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119명(52.4%) 만족 60명(26.4%), 불만 48명(21.1%)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인의 서술적 통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는 3.21±0.66이고, 임상수행능력은 3.39±0.42, 임상실습 만족도는 3.37±0.46, 비판적 사고성향은 3.50±0.44,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은 3.37±0.4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 분포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

값이 ±1.96 범위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측정변수 간 상충분산이 10을 넘는 변수가 없었으며 공차도 0.1 이하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측정모형의 검증

먼저 잠재변수의 확인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개념, 판별, 법칙 타당성을 확인한 후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전체 적합도와 경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27)

Variables	(Mean±SD) /item	Skewness	Kurtosis	Estimate	SE	CR	AVE
Clinical Practice Stress	3.21±0.66	-0.45	-0.23				
Situational characteristic	3.11±0.65	-0.48	-0.47	0.78	0.17	0.94	0.84
Personal characteristic	3.10±0.71	-0.17	-0.37	0.90	0.09		
Exernal regulators	3.46±0.82	-0.29	-0.47	0.88	0.15		
Clinical competency	3.39±0.42	-0.16	2.39				
Nursing process	3.32±0.43	-0.10	1.35	0.77	0.08	0.97	0.87
Nursing technology	3.28±0.48	0.12	0.60	0.75	0.10		
Education and cooperation	3.43±0.55	0.21	1.26	0.80	0.11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3.43±0.52	0.10	2.34	0.79	0.10		
Professional development	3.48±0.52	-0.11	1.64	0.80	0.1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37±0.46	0.40	-0.07				
Practice subject	3.64±0.66	-0.12	-0.38	0.54	0.31	0.92	0.67
Practice contensts	3.00±0.49	-0.52	0.38	0.60	0.16		
Practice guidance	3.42±0.60	0.06	0.53	0.74	0.18		
Practice circumstance	3.40±0.53	0.25	0.52	0.75	0.13		
Practice time	3.39±0.77	0.22	0.04	0.69	0.31		
Practice assessment	3.37±0.69	0.28	-0.09	0.69	0.26		
Critical thinking	3.50±0.44	0.40	0.34				
intellectual enthusiasm	3.74±0.54	0.02	0.25	0.71	0.15	0.97	0.80
prudence	3.61±0.54	0.01	-0.35	0.75	0.13		
Self confidence	3.30±0.56	0.11	0.30	0.62	0.19		
Systematicity	3.49±0.63	0.17	0.61	0.74	0.18		
intellectual fairness	3.49±0.63	0.22	0.65	0.82	0.13		
healthy skepticism	3.52±0.55	0.32	0.23	0.86	0.08		
Objectivity	3.37±0.50	0.55	1.04	0.69	0.13		
Professional self-concept	3.37±0.46	0.41	0.99				
Professional practice	3.38±0.44	0.05	1.17	0.87	0.05	0.96	0.88
Satisfaction	3.30±0.48	0.59	1.10	0.88	0.05		
Communication	3.42±0.64	0.24	-0.08	0.74	0.18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hi^2 = 511.21$, $df=242$, $p<.001$, CMIN/DF=2.11, GFI=0.85, AGFI=0.81, RMR=0.20, NFI=0.85, TLI=0.90, CFI=0.92, RMSEA=0.07

<Table 2> Correaltion Matrix Table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Practice Stress	0.84				
Clinical competency	-.06	0.87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2***	.50***	0.67		
Critical thinking	-.16*	.53***	.54***	0.80	
Professional self-concept	-.25***	.58***	.58***	.63***	0.88

※ 각 요인별 대각선 행렬은 분산추출지수임
* $p<.05$, ** $p<.01$, *** $p<.001$

3.3.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5개 변인에 대해 확인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지표는 χ^2 , CMIN/DF, GFI, AGFI, RMR, NFI,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이용하였다. 확인요인분석결과 χ^2 값은 511.21(df=242, $p<.001$), CMIN/DF=2.11, GFI=0.85, AGFI=0.81, RMR=0.20, NFI=0.85, TLI=0.90, CFI=0.92, RMSEA=0.07로 비교적 양호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각 요인 표준화계수는 모두 0.5 이상이고, 모든 요인에서 개념신뢰도(0.7이상)와 분산추출지수(AVE, 0.5이상)가 임계치 이상을 보여 신뢰성과 개념 타당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3.3.2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와 다중상관지수를 비교한 결과, 다중 상관계수(r^2)의 값이 대각선의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작아 요인 간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r=0.63(p<0.01)$, 임상 수행 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각각 $r=0.58(p<0.01)$ 의 양적 관계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r=-0.25(p<0.01)$ 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법칙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3.4.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초기에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각 요인 간 상관행렬을 기초로 최대우도법(ML :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한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χ^2 값은 533.19(df=129, $p<.001$), CMIN/DF(χ^2 /df)=2.519, GFI=0.84, AGFI=0.80, RMR=0.03, NFI=0.85, TLI=0.90, CFI=0.91, RMSEA=0.07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인 지표들과 비교할 때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χ^2 값은 533.19($p<.001$)로 가설적 모형이 각각이었으나 표본수에 덜 민감한 다른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한 결과, CMIN/DF는 2.0~3.0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CMIN/DF=2.19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GFI=0.84, AGFI=0.80, NFI=0.85는 우수한 적합도의 기준인 0.90에 근접하며, TLI=0.90, CFI=0.91로 우수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RMR과 RMSEA는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 모형에서는 RMR=0.03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0.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 Hypothetical of Fitness

χ^2 (p)	DF	CMIN/ DF	GFI	AGFI	RMR	NFI	TLI	CFI	RMSEA
533.19 ($<.001$)	129	2.52	0.84	0.80	0.03	0.85	0.90	0.91	0.07

3.4.2 가설적 모형의 모수치 추정

가설적 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냄에 따라 변인들 간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으로 가설적 모형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비판적 사고성향 사이의 경로계수는 0.42($p<.001$)로 유하였고,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과 임상실습 만족도 사이의 경로계수는 0.19($p=.001$)로 유의하였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사이의 경로계수는 -0.15($p=.001$)로 유의하였고, 간호전문직과 임상 수행능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33($p<.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 수행능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69%이었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사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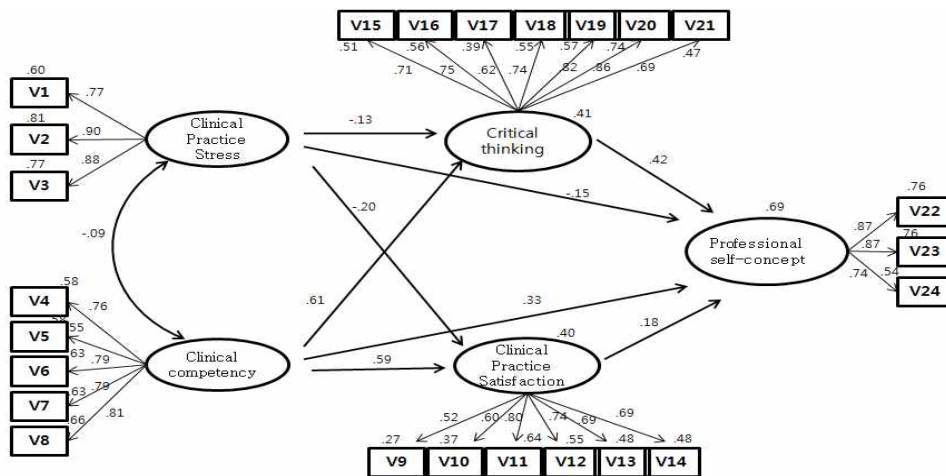
경로계수는 -0.13($p=.039$)로 유의하였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수행능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61($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 수행능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은 41%이었다.

셋째,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사이의 경로계수는 -0.20($p=.003$)으로 유의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 수행능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59($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임상

<Table 4> Hypothetical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athway hypothesis	Estimates	SE	CR	SMC	Result
Professional self-concept	← Critical thinking	0.42	0.07	5.67***	0.69	Accept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19	0.06	2.59***		
	← Clinical Practice Stress	-0.15	0.03	-2.90**		
	← Clinical competency	0.33	0.08	3.93***		
Critical thinking	← Clinical Practice Stress	-0.13	0.03	-2.06*	0.41	Accept
	← Clinical competency	0.61	0.07	7.8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Clinical Practice Stress	-0.20	0.04	-3.00**	0.40	Accept
	← Clinical competency	0.59	0.09	7.28***		

* $p<.05$, ** $p<.01$, *** $p<.001$



V1: Situational characteristic, V2: Personal characteristic, V3: External regulators, V4: Nursing process, V5: Nursing technology, V6: Education and cooperation, V7: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V8: Professional development, V9: Practice subject, V10: Practice contents, V11: Practice guidance, V12: Practice circumstance, V13: Practice time, V14: Practice assessment, V15: Intellectual enthusiasm, V16: Prudence, V17: Self confidence, V18: Systematicity, V19: Intellectual fairness, V20: healthy skepticism, V21: Objectivity, V22: Professional practice, V23: Satisfaction, V24: Communication

[Fig. 1] Path diagram for hypothetical model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Pathway hypothesis		Direct effect coefficient(<i>p</i>)	Indirect effect coefficient(<i>p</i>)	Total effect coefficient(<i>p</i>)
Professional self-concept	← Critical thinking	0.42(.010)		0.42(.010)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19(.057)		0.19(.057)
	← Clinical Practice Stress	-0.15(.010)	-0.09(.030)	-0.24(.010)
	← Clinical competency	0.33(.010)	0.36(.010)	0.69(.010)
Critical thinking	← Clinical Practice Stress	-0.13(.084)		-0.13(.084)
	← Clinical competency	0.61(.010)		0.61(.01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Clinical Practice Stress	-0.20(.016)		-0.20(.016)
	← Clinical competency	0.59(.010)		0.59(.010)

실습 스트레스, 임상 수행능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차승은 40%이었다<Table 4>. 결론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 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3.4.3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검증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임상실습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직접효과와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이 0.42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상 수행능력이 0.33이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에 대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총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간접효과는 임상 수행능력이 0.36으로 큰 요인이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 수행능력을 외생변수로, 임상실습 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을 내생변수로 하여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구조모

형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요인들의 측정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보여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었고,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을 수용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비판적 사고성향($\beta = .42$)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임상 수행능력($\beta = .33$), 임상실습 만족도($\beta = .19$), 임상실습 스트레스($\beta = -.15$)로 나타났다. 먼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Kwon과 Kwag[25]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경로분석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기존 상관관계 연구를 한 Shin과 Cho[13]의 연구와 Kim[26]의 연구에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론과 실습을 통해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사정하고 진단, 계획, 수행 시 근거중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 적용과 교육환경 등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전문

직 자아개념에 임상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경로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어 상관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Kwon과 Kwag[25]의 연구와 Park 등[27]의 연구, Baek 등[28]의 연구에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Park 등[27]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 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간접효과가 있는데 그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직접효과 수준에 비해 간접효과 수준이 작았다. 이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비판적 사고성향을 반드시 매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접경로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임상 수행능력은 직접효과 수준에 비해 간접효과 수준이 더 컸다. 이는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매개한 간접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같이 높일 수 있어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에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변인과 매개변인에 대한 일치된 자료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기에 추후 확대된 반복 경로모형 연구를 통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임상 수행능력($\beta=.61$)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beta=-.13$)로 나타났다. 먼저, 임상 수행능력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Lee[14]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수행능

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관관계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Shin과 Cho[13]의 연구와 Baek 등[28]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치위생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ang[29]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임상 수행능력의 하부 영역 중 간호기술이 3.28점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어 실제 대상자에게 간호기술을 시행하는 능력이 낮음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의료현장은 환자의 권리나 의료지식에 대한 수준 증가, 많은 제약 등으로 학생들이 실습기간 중 실제 간호기술을 적용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간호기술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실습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내 시뮬레이션, 통합 실습 등 대안적 실습교육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Lee[14]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는 상관관계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Kim 등[30]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유사하였다. 이는 병원별, 교과목별 다양한 실습 상황에 적용하기 쉽지 않고, 간호학생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친화적이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나 과제물 등으로 인한 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실습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실습목적에 따른 학생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인지시키고, 임상실습현장에서도 그 역할에 맞는 실습지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과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멘토링 제도나 동아리 활동,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습에 충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져야 하며 실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과제물과 개인 맞춤형 지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단순히 과제물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성향은 일정부분 배제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임상 수행능력($\beta=.59$)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beta=-.20$)로 나타났다. 임상 수행능력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Baek 등[28]의 연구와 Park 등[27]의 연구, Yu[31]의 연구, 치위생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ang[29]의 연구에서 임상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임상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향상됨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간호술기 교육으로 간호술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자신감은 스스로를 만족하게 되므로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Park 등[27]의 연구와 Yu[3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임상실습 스트레스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부영역 중 실습 내용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실습내용의 충실도를 높이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와 실습내용에 맞는 실습기관 확보, 실습 내용에 맞는 현장지도 등의 실습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순으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69% 설명하였다. 임상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간접효과도 있었으며, 총 효과에서는 임상 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에는 임상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순으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41% 설명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는 임상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순으로 직접효과가 있었고 이들 변인들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40%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무 교육방법과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교수법, 소집단 협력학습 등 이론과 실습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간호학생들이 간호술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교내 실습교육시간과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며 실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 지역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 결과이기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 변인들의 경로에서 동일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를 통한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어 추후 경로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경로에서 확인된 변인들을 고려하여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 교수와 임상 현장 지도자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며,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The science of nursing, doopedia, 2010, <http://www.doopedia.co.kr/mv.do?id=101013000721612>, May 22, 2017.
- [2] Y. M. Kwon, &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 Vol. 13, No. 3, pp. 285-292, 2007.
- [3] M. J. Schank, & D. Weis,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Vol. 17, No. 5, pp. 226-233, 2001.
- [4] H. Elrich, "The clinical education of the medical student",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42, 1967.
- [5]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6.
- [6] J. A.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3, pp. 325-334, 2004.
- [7] R. K. Olson, R. S. Gresley, & B. S. Heater, "The effect of an undergraduate clinical internship of the self concept and professional role mastery of bachel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3, pp. 105-108, 1984.
- [8] C. Barrett, &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o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No. 2, pp. 364-371, 1998.
- [9] M. G. Rubenfeld, & B. K. Scheffer,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n interactive approach 2", Lippincott, Philadelphia, 1999.
- [10] J. Profetto-McGrath, "Critical thinking and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21, No. 6, pp. 364-371, 2005.
- [11] I. S. Kown, & Y. 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25-33, 2012.
- [12] E. M. Ji, & J. H. Lee, "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2, pp. 1125-1140, 2014.
- [13] K. A. Shin, &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1, pp. 46-56, 2012.
- [14] A. K. Lee, H. S. You, & I. 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2, pp. 154-163, 2015.
- [15] G. S. Kim, "Structural equating model analysis, Hannarae Academy, Seoul, 2010.
- [16]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17] W. H. Lee, J. J. Kim, J. S. Yu, H. G. Heo, G. S. Kim, & S. M. L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 instrument of pract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Vol. 13, pp. 17-29, 1990.
- [18] M. S. Choi,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19] G. J. Cho, & H. S. Kang, "The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 2, pp. 63-74, 1984.
- [20] S. E. Lee, "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a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7, No. 2, pp. 333-348, 2001.
- [21] S. H. Lee, S. Y. Kim, & J. A. Kim, "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 [22] J. Yu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23] D. Arthur,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1990.

- [24] K. Y. Sohng, & C. H. Nho, "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4-106, 1996.
- [25] Y. H. Kwon, & O. G. Kwag, "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0, pp. 4572-4581, 2012.
- [26] M. Y. Kim,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3, pp. 1884-1893, 2015.
- [27] B. J. Park, S. J. Park, & H. A. Cho, "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220-227, 2016.
- [28] M. J. Baek, W. J. Kim, & H. S. Ryu, "Influencing factor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 pp. 3353-3365, 2013.
- [29] K. A. Jang,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35-42, 2015.
- [30] I. S. Kim, Y. K. Jang, S. H. Park, & S. H. So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3395-347, 2011.
- [31] H. S. Yu, "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2, pp. 1129-1144, 2015.

주 현 정(Ju, Hyeon Jeong)



- 2009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보건통계학
- E-Mail : joo97964@naver.com